

## 01. 교과서 재구성하기

교사는 한 단원의 목표를 학생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학생들이 개개인의 언어로 자신의 목표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 차시 안에 이루어지는 이해학습과 적용학습이 성취 기준에 입각하여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과 내용 뿐 아니라 방법에 대한 재구성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성취기준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교사는 학습량의 적정화를 통해 교사와 학생간의 역동적 상호 작용을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 간의 협력 및 체험학습이 가능하며, 수업 방법의 다양화 시도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구성을 통해 확보된 시간을 교사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듣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으로 보여 집니다. 재구성으로 확보된 시간과 여유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원 도입에서 학생들은 단원명을 가지고 질문을 통해 충분한 상호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단원을 통해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교사는 성취기준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다음은 교과서 재구성에 있어서 교과서 외에서 텍스트를 가지고 오거나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하고 이해학습과 적용학습이 한 차시 안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단원 내 재구성의 예를 제시한 것입니다.

학년 학기/ 단원	성취기준	차시별 재구성 학습내용
2학년 1학기/ 6. 알기 쉽게 차례대로	듣기·말하기(4)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  문학(6) 일상 생활에서 겪은 일을 동시나 노래, 이야기로 표현한다.	1. ‘알기 쉽게 차례대로’ 무슨 말일까요?(단원명 질문)시 간을 나타내는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그림책에 나오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볼까요? 3. 겪은 일을 듣고 차례대로 말할 수 있나요? 4~5 이야기를 듣고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말할 수 있나요?(주인공에게 질문하기) 6.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나요? 7~8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꾸밀 수 있나요?

2학년 1학기 6단원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 일이 일어난 차례를 말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원 도입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첫 차시를 시작합니다. “알기 쉽게 차례대로는 무슨 말일까요? 6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하게 될까요?”, “알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차례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등 학생들은 교사의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6단원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 알게 되고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자신

만의 목표를 갖게 됩니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도적으로 알기 쉽게, 차례대로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연관시켜야합니다. 1차시 수업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충분히 찾은 학생들은 2차시에 그림책을 한 권씩 준비합니다. 교사가 먼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 있는 그림책을 읽어주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책에 나오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간 문장을 모둠 친구들에게 읽어주면서 학생들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는 예를 접하게 되고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짓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말할 때에도 그림책을 통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는 예를 보았기 때문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문학 작품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겪은 일은 간단히 표현하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 일의 차례가 드러나게 표현함으로써 문학적 표현 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서사적 말하기의 기초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원 내 재구성이 필요했고 재구성의 주안점은 교과서에 제시된 이해학습과 적용학습을 한 차시 안에 일원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말하면 좋은 점을 알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알고, 겪은 일을 차례대로 말하는 방법을 아는 이해학습을 놀이를 통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많이 찾아 유목화하고, 그림책에서 찾아보고 그 문장을 말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게 되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한 그림책을 읽게 되면서 등장인물이 겪은 일을 차례대로 말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말할 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면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효과적으로 단원 내 재구성을 통해 짝과 겪은 일을 차례대로 말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면서 학생들의 협력과 체험학습이 가능했고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학년 학기/ 단원	성취기준	차시별 재구성 학습내용
4학년 1학기/ 1. 이야기 속으로	문학(4) 작품 속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하여 설명한다.  읽기(6) 글에 대한 반응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1. '이야기 속으로' 그 다음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단원명 질문하기) '고양이야 미안해'를 읽고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질문으로 내용 파악하기) 2. '숨은 쥐를 잡아라'를 읽고 주인공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볼까요?(주인공에게 질문하기) 3. '행복한 비밀 하나'를 읽고 떠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4.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과 비슷한 인물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5. 역할극으로 꾸미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6~7. 역할극 하기 8. 나의 성격은 어떤가요? (성격을 표현하는 말을 찾고 나의 성격 찾기)

4학년 1학기 1단원은 이야기의 구성요소에 대해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교과서에는 '고양이야

미안해', '독 안에 든 빵 작전', 행복한 비밀하나' 세 개의 텍스트가 실려 있습니다. '고양이야 미안해'와 '행복한 비밀 하나'는 원본 수정이 거의 없이 전체 내용이 실려 있고 '독안에 든 빵 작전'은 '숨은 쥐를 잡아라' 라는 책의 일부를 실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야기에 대한 기초적인 문학 지식 즉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학작품을 수용하고 감상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먼저 단원 도입 질문을 던져 단원 학습 목표를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단원명이 이야기 속으로네요.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이야기 속으로 다음에 말을 더 넣는다면 어떤 말이 적당할까요?" 교사의 질문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인물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하고 인물이 되어보는 것이 문학 작품 수용에 효과가 있다는 전제하에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그 인물이 되어보면 성격도 잘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질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문학 작품의 인물을 통해 나의 주변을 살피게 되고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인물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학적 수용능력뿐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접근까지 가능하였습니다. 역할극을 하면서 학생들은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고 문학 작품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교과서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하여 알고,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을 안다. 또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이 단원 재구성의 주안점은 수업 방법의 다양화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문학적 지식(인물, 사건, 배경)을 질문을 통해 파악하게 되고 텍스트는 역할을 나누어 실감나게 읽도록 하였습니다. 이야기의 구성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지식을 아는데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간의 관계를 통해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배려로 빙고놀이를 통해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알도록 하는 수업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학습 내용의 재구성은 학습 방법에 대한 변화가 뒤따르게 되고 학습 방법의 변화는 학생들에게 협력,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 02. 질문과 이야기로 확장하기

국어과에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자신의 경험을 텍스트와 관련시키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작품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인물의 생각을 찾는 활동을 하는 것이 단위 시간의 목표라고 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배제한 채 인물의 생각을 찾아내는 목표에만 집중한다면 문학수업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를 두세 번 읽으면 누구나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문학 작품을 수용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학은 내 삶이 녹아있는 것이고 나의 경험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풀어내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에 따라 질문은 시에 좀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질문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작품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 교사는 질문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려면 교사의 질문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학생들도 질문을 가지고 텍스트에 접근합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가지고 텍스트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은 교사의 철저한 계획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내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갖도록 질문을 해야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학생들의 질문을 서로 연결시켜야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지켜보아야합니다. 질문을 이야기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느낌과 경험을 풀어내기 전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년 학기/ 단원	성취기준	차시별 재구성 학습내용
4학년 1학기/ 10. 감동을 표현해요	문학(6)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느낀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문학(2)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부분에 유의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1. 시의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기 2. 좋아하는 시를 읽고 인물에게 궁금한 것이 있나요? 3. 시를 읽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살려 시를 바꾸어 쓰기 4. ‘멀리 가는 향기’를 지닌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까? 5. ‘웃음총’ 읽기 6. 나만의 웃음총을 디자인해 볼까요? 7. 웃음총을 누구에게 쓰고 싶은가요?

4학년 1학기 10단원은 시나 이야기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이해능력과 표현능력을 동시에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단원은 크게 세 가지 학습내용을 포함합니다. 첫째, 시나 이야기 작품의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부분에 주의하며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느낀 점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 작품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숨은 뜻을 통하여 작품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작품의 숨은 뜻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에 대한 느낌을 생활 주변의 이야기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관련짓도록 하기 위해 교사는 학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시의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이 시를 읽고 궁금한 게 있나요?” 학생들은 교사의 이러한 질문들을 듣고 자신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시의 제목과 나의 경험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시를 읽고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떤 모양의 웃음총을 디자인할까?”, “웃음총을 누구에게 쓰지?”, “멀리 가는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향기가 날까?”, “글쓴이는 멀리 가는 향기라는 글을 왜 썼을까?”, “내 주변에도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나?”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갖게 되면 텍스트가 그들의 이야기로 확장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활동은 자신의 삶을 풀어내는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멀리 가는 향기를 지닌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아빠는 일하고 돌아오면 땀 냄새가 나는데 씻어도 그 향기가 없어지지 않아 비누 냄새와 섞여있는 냄새인데 그것이 아빠의 향기이다.” 이 학생은 ‘멀리 가는 향기’라는 제목의 텍스트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 보이나 아빠의 땀냄새를 통해 그 고단함의 향기를 맡은 듯 보입니다. 비누냄새와 섞인 아빠의 땀 냄새에서 아빠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엿보였습니다. 아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아이의 삶

이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질문으로 시작된 학생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웃음총을 누구에게 쓰지?”라는 질문에 대한 한 학생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병석에 누워계신 외할머니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어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할머니, 지금도 아프셔서 힘들고 웃기도 싫죠? 외할머니가 웃음을 잃어 너무 슬퍼요. 많이 웃을수록 빨리 낫는대요. 그러니 많이 웃으시라고 웃음총을 뽕! 드릴게요” 질문을 통해 엿보이는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때론 몽클하기도 하고 때론 따스한 햇살 같기도 합니다.

시나 이야기 작품의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부분에 주의하며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느낀 점을 찾는 활동이나 작품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숨은 뜻을 통하여 작품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나 작품의 숨은 뜻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에 대한 느낌을 생활 주변의 이야기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활동의 시작은 질문이어야 하며 그 끝은 학생들의 이야기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풀어내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은 학생들 각자의 마음에 질문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 03. 핵심내용과 그 밖의 이야기로 분류하기

교사는 단원의 재구성 과정에서 성취기준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이야기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도 그 범위를 정하여 학습 내용에 적합한 질문들을 갖고 학습에 임하도록 유도해야하는 것처럼 텍스트와 관련된 이야기 역시 핵심 내용과 그 밖의 이야기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학습에 좀 더 효율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학생들이 교사의 이런 의도를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업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떠한 질문과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어야 마음껏 질문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는 차츰 성취기준과 관련하여 정해진 어떤 범위 안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이거나 학생들 스스로 범위를 좁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수업이 혹 질문만 하다가 끝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조치가 수업 내내 작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학년 1학기 1단원의 성취기준이 문학 (5) 작품 속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나와 견주어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라면 ‘동생 만들기 대작전’을 읽고 질문으로 내용 파악을 할 때 성취기준에서 너무나 벗어난 질문들은 분류하여 학생들이 질문의 수준과 범주를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정하고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풀어낼 때에도 학습 목표에 맞는 핵심 내용을 풀어내도록 하고 만일 목표와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할 경우 적절한 피드백이 작동해야합니다. 이것이 질문 수업을 하는 교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물론 그 피드백 또한 질문으로 해야겠지요? “○○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교사가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학생 간 상호 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학년 학기/ 단원	성취기준	차시별 재구성 학습내용
5학년 1학기/ 1. 인물의 말과 행동	문학(5) 작품 속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나와 견주 어 이해하고 평가한다.  읽기(1) 문맥을 고려하여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1. 시를 읽고 인물의 생각 알기 2. '웅고집전'을 실감나게 읽고, 인물의 마음 알기 3. '동생 만들기 대작전' 읽어주고 질문 만들기 4. '후원'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기 5. '일곱 발, 열아홉 발' 역할 정하여 읽기 6. '일곱 발, 열아홉 발' 읽고 인물의 생각과 내 생각 비교하기 7. 이야기의 한 부분을 정하여 촌극 대본 쓰기 8. 촌극 공연하고 궁금한 점 질문하기

문학 작품 속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학생들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과 견주어 보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면서 좀 더 다양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동시에 타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물의 생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학생들은 등장인물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였는지 짐작하여 보는 활동을 합니다. 옛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 인물의 생각을 파악하기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개 양상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인물의 생각을 파악하는 학습 활동에도 효율성을 더하여 주는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인물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찾는 활동을 핵심 내용으로 정합니다. 학생들은 간혹 '동생 만들기 대작전'을 읽고 후원에 관한 인물의 생각을 논하기 보다는 동생이라는 관계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주요 관심의 대상을 후원이라는 낱말에 집중하도록 하고 등장인물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비교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생과의 관계나 인물이 처해진 상황은 그 밖의 이야기로 분류하여 학습 목표에 영향을 주는 범위 안에서 가볍게 다루어 주면 됩니다. '일곱 발, 열아홉 발'의 내용은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인물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평가하고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 주가 됩니다. 여기서도 학생들이 핵심 내용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사는 학생들이 인물들의 생각을 명확히 알고 있는 지 확인하고 질문을 통해 충분한 내용 파악을 한 후에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과 그 밖의 이야기로 분류하지 않고 학생들의 모든 질문과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면 목표 도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